



5면

'큐뮤 필름 스튜디오' 전주에 등지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음 10월 13일) 제362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기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도 전북교육 예산 4조5732억원

올해보다 1.6% 증액  
학력신장·책임교육  
ESG·국제화 교육  
미래교육 등에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 4조5,732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 이상곤 예산과장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원(1.6%) 증가한 4조5,732억원이다. 이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은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금에서 총담한 3,200억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필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의 ESG 교육 △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등이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4년도 대비 1,568억원(4.3%) 증가한 3조5,061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원(△1.6%) 감소한 3,744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원, 교육복지 3,282억원, 보건·급식 1,47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원, 인건비 2조2,008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원을 편성했다.



수능 문답지 인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도착한 수능 문답지를 운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원 △문제제 교육 활성화 483억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책임 교육에도 1,06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원 △전북에듀케어 지원 341억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원 △대안교육 지원 35억원 △다문화 교육 29억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에 423억원을 투입한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171억원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 249억원 △부패방지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 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원 등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76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발전 특구(11개 지역)사업 333억원 △맞춤형 학교복합시설(4개 지역) 147억원 △전북 교육협력지구 운영 70억원 △지자체-지역 연계 사업에 49억원 △어울림 학교(153개교)와 원도심 학교 운영(52개교) 45억원 △농촌 유학(30개교)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4,31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54억원 △학교 시설 763억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160개교) 489억원 △학교체육시설 개선(29개교) 30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1,588억

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원,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0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끝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조2,008억원(전체예산의 48.1%)을 편성했다.

이상곤 과장은 "올해 예산은 부서별 학력 신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 발굴 및 사업 시행에 중점을 뒀다"면서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앞에 펼쳐질 미래, 희망으로 가득하길”

전북자치도,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안전대책 추진  
김관영 도지사, 수능 앞둔 수험생에 응원 메시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사진)가 오는 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에 나선다.



오작동에 대비한 대처 요령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수험생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수능 당일에는 도내 66개 시험장에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인 소방안전관리관 67명을 배치하여 응시생의 안전을 철저히 지원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험생 여러분과 그 곁에서 응원해주는 가족,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멋진 성과를 이루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2036 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

전북자치도, 국내도시 선정 평가위 심의 대비에 행정력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로써 새롭게 출범한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전북자치도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개최도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를 비롯해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께 국내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내 도시 경쟁을 풀어야 함에 따라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유

구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자치도가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 △낮은 비용을 들이는 대신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등의 보유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2036년 올림픽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정신으로 승화해 세계인들이 한국의 멋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편,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원에 이른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